

“하늘을 나는 직업 매력있어요”

아시아나항공, 광주서 재능나눔 페스티벌



“조종사가 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습니다.”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이 미래 항공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 ‘하늘을 나는 색다른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는 재능기부에 나섰다. 지난 4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 재능나눔 페스티벌 ‘플라잉 위드 유(Flying with You)’.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아시아나 승무원들은 ‘하늘을 나는 직업 세계’를 소개했다. ‘조종사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승무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에 쏟아졌고, 승무원들은 경험담을 전했다.

또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비전 강연과 조종사밴드 ‘VFR(Visual Flight Rule : 시계비행규칙)’의 축하 공연도 열렸다. 승무원 에티켓도 선보였다.

지난 4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재능나눔 페스티벌 ‘플라잉 위드 유(Flying with You)’ 행사에서 조종사밴드 ‘VFR’이 공연하고 있다. <아시아나 제공>

백주현 사회공헌팀장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반응에 큰 보람을 얻었다. 감사하다”며 “아시아나항공만이 제공할 수 있는 색다른 행사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즐거워했다.

아시아나는 재능나눔 사회공헌의 하나로 항공업계 근무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 캐빈승무원·운항승무원·정비사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직원들이 직접 직업에 대해 설명하는 ‘플라잉 위드 유’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10일 서울 강연회를 시작으로 광주(7월 4일), 서울(9월 27일), 부산(12월 20일) 등 연중 4회 열린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강연회가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란다”며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업계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ju.co.kr

광주로타리클럽 회장에 이영걸씨



광주로타리클럽 제54대 회장에 이영걸 회장이 취임했다.

최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회장은 “54년 역사의 우리 클럽이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 모으자”면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에게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임기 동안 회원상호간 유대강화, 로티리재단 기부 실적 향상, 새터민 지원과 다문화 가정 돋기사업, 일본 동학로시마 사이조를 광과의 자매관계 강화 등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사

◆법무부

◇급(서기관) 승진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김일환 ▲광주소년원 서무과장 김양곤

◆광주은행

◇지점장 승진 ▲광영지점장 서세종 ▲무안 김종협 ▲서부 이영희 ▲연동 김정관 ▲충농 서연진 ▲마포금융센터지점 기업금융지점장 이경범 ▲송가금융센터지점 황승연

◇부점장 전보 ▲카드사업부장 김성훈 ▲여신감리팀장 박찬우 ▲소비자보호실장 최영균 ▲강남지점장 정복남 ▲경양로 ‘명월호 ▲광천동’ 박정민 ▲두암동’ 임택근 ▲두암동’ 임문모 ▲문홍’ 나성원 ▲봉선이마트’ 이광주 ▲산수동’ 오선탕 ▲상무금융센터’ 고재권 ▲상무’ 주병장 ▲서울제8호점과 개설준비위원장 김상섭 ▲수완금융센터지점장 박석중 ▲신가동’ 강인식

내방

▲김재무(전남도의회 의장)씨 ▲임명규(전남도의회 부의장)씨 ▲송주호(”)씨 ▲김옥기(전남도의회 의원)씨 ▲박내영(전남도의회 사무처장)씨 ▲장태기(전남도의회 의정지원관)씨 ▲김향근(광주시교육청 행정국장)씨 ▲심행선(광주시 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 서기관)씨

‘연못 삽’ 박세리에 패했던 추아시리폰 미국서 간호사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

제니 추아시리폰(34). 한국 골프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이름이다.

1998년 미국 워스콘신주 콜러 블랙풀프린 골프장의 월피언십 코스에서 열린 US여자오픈 골프 대회에서 박세리(35-KDB금융그룹)와 연장전만 20개 흘을 치른 끝에 준우승한 태국계 미국인이 바로 추아시리폰이다.

5일(한국시각) 막을 올리는 올해 US여자오픈이 14년 만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면서 당시 캠페인에 오른 박세리가 집중 조명을 받는 가운데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는 4일자 신문에 추아시리폰의 근황을 전했다.

당시 4라운드 마지막 18번 흘에서 약 12m 거리의 베디에 성공해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던 추

아시리폰은 박세리와 18흘 연장전을 벌이고도 승부를 내지 못해 서든데스 2개 흘까지 치른 끝에 준우승에 머물렀다.

연장에서도 추아시리폰은 5번 흘까지 4타 차나 앞서다 역전을 허용, 더욱 아쉬움이 남는 승부였다.

특히 연장 18번 흘에서는 아직도 한국 팬들의 뇌리에 생생한 박세리의 ‘연못 삽’으로 눈앞에 뒀던 우승이 날아간 추아시리폰이었다.

대회전 끝에 갈린 승부였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골프계에서 둘의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다.

박세리는 골프 명예의 전당에 올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롤 모델’로 추앙받고 있지만 추아시리폰은 일



찌감치 골프에서 은퇴, 지금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가족 일상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TV로 지켜볼 예정이라는 추아시리폰은 “세계 최고의 선수와 겨룰 수 있어 그때를 돌아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때가 내 골프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고 말했다.

추아시리폰은 “내가 그 정도 성적을 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그러나 연장에 들어가서는 박세리가 당시 아파추어였던 나를 상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여겼다”고 회상했다. /연합뉴스

신안출신 故 김환기 작가 상반기 미술품 경매 1위

2012년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에서 작품 거래액이 가장 많았던 국내 작가는 김환기(신안출신·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5일 발표한 ‘2012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미술품경매에서 김환기는 낙찰작품 20점이 총 38억1150만원에 거래돼 국내 작가 중 최고 거래액을 기록했다.

상반기 국내 미술품경매 총 거래액은 약 374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주요 10대 작가가 차지한 비중은 43%였으며 김환기(10%), 박수근(8%), 이우환(6%), 이대원(4%), 천경자(4%), 김창열(3%), 손상기(2%), 김종학(2%), 이중섭(2%), 유영국(2%) 순이었다.

2위에 오른 박수근은 모두 8점이 낙찰돼 30억820만원에 거래됐고 이우환은 27점이 23억420만원에 거래돼 3위를 차지했다.

외국 작가의 경우 1위는 낙찰 작품 22점이

모두 18억1750만원에 거래된 쿠사마 야요이, 2위는 작품 3점이 17억60만원에 거래된 마르크 샤갈이었다.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에서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1위는 17억원에 낙찰된 마르크 샤갈의 ‘부케’였으며 뒤를 이어 박수근의 ‘아이업은 소녀와 아이들이’ 15억2000만원으로 2위에, 쿠사마 야요이의 ‘인피니티 스타즈(Infinity Stars)’가 12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김환기는 낙찰가격 상위 10위권에도 작품 4점이 포함되는 등 경매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한국시가미술품감정협회 측은 “기준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박수근의 작품이 시장에서 희소가치가 높아져 거래 빈도가 낮아진 틈을 타 김환기가 그 자리를 빠른 속도로 채워가는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홍이식 화순군수

글로벌CEO 마케팅부문 대상



홍이식 화순군수는 ‘2012 대한민국 글로벌CEO’ 글로벌 마케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와 종합일보·전문경제지 포브스 코리아·지식경제부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CEO’ 대상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글로벌 진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 대표적인 차지단체장과 기업 전문경영인을 기리는 상이다.

이번 ‘글로벌CEO’ 대상은 홍 군수를 비롯해 정준양 포스코 회장, 김윤섭 유한양행 사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총 32명이 선정됐다.

홍 군수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단체장이 되려면 우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글로벌 경영의 최우선 조건”이라며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관광과 밀그램이 완성된 화순군 대표축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세계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각학중 교직원 거동 불편 독거노인에 도움



각학중학교(교장 김홍식) 교직원들은 지난 4일 각학중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각학중학교 제공>

광주공항 ‘썸머 뮤지컬 갈라쇼’



한국공항공사광주지사(지사장 김종성)는 최근 공항 여객청사 2층 만남의 광장에서 주민, 공항 이용객, 직원 등과 함께 ‘썸머 뮤지컬 갈라쇼’를 개최했다. <한국공항공사광주지사 제공>

조선대병원-시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 협약



조선대병원(병원장 민영돈·사진 오른쪽)은 최근 병원 신관 4층 병원장실에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정웅·왼쪽)와 119구급상황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목포대 한성원씨 등 aT 우수논문 공모전 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2 aT 대학생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은 목포대 한성원씨 등 3명의 ‘막걸리산업의 글로벌 전략 고찰’이 선정됐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직장체험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박종수)는 지난 2일부터 한달간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10일(화) 오후 6시 30분 도지원회의실 3층 017-601-2266.

동창·동문회

▲광주총장중학교 총동문회 창립총회=13일(금) 오후 7시 삼우자구(주)피렌체호텔 2층 010-3002-0099.

알림

▲전의경회(경우회 특별회)=전 의경 전역자들의 모임회 창립 019-277-0007.
▲포인트재활원=주나요법, 재활 상담부료, 두통, 오십견, 목, 허리, 디스크, 요통, 척추협착증, 흘반통, 좌골신경통, 족부, 건강수기진단법 및 치료교정. 주야대기 062-651-9030.
▲참된 나 찾기 무료학습 공부=

인취업 대표전화 개통=노인 취업 상담과 알선을 위한 대표 번호 (1577-6065) 개통. 지역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상담.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와 '#버튼을 통해 광주시연합회 취업 지원센터로 연결.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긴급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 비·생필품), 친자확인검사지원 및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gdfc.familynet.or.kr/>)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형외상센터=성형외상(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류. 062-673-1366, 062-671-4050.

모집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자원봉사 남자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용 보험=FREE TIME 제도, 딥임제 관

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 정에,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거동 불편한 어르신=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부자 재가노인복지센터 062-266